

전사의 치료

「마카온」의 이름은 외과학의 아버지로서 몇세기 동안 이야기 되어 왔다. 그는 「일리아드」신화속에서 상처를 씻고 약을 뿌린데서 유래하고 있다.

전장의 귀족전사 외에도 의사로서 기술을 가진자가 있었다. 그들은 직인계급의 출신이지만 특별히 다른 기술을 가진 자와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존경받고 있었다.

이 그림은 소시아스 용기의 부분(기원전 50년경), 「파트로크로스」의 상처에 붕대를 감는 「아킬레우스」전사가 타인 상처의 치료를 해준다는 전장에서 볼수 있는 전형적인 광경이다.

— 베를린 국립박물관 —



세창치과기공소

752-5970, 778-8687

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18 (금정빌딩 302)

대표 권혁문